

창립 26주년 기념

「특수건물관계자 초청간담회」 개최

지난 5월 13일 창립 26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특수건물관계자 초청간담회가 열렸다.

특수건물관계자 초청간담회는 1979년 처음 개최되어 이번이 21회째이며 그동안 1,050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번 간담회는 현대성우리조트(강원도 횡성), 만도기계(경기도 평택) 등 특수건물관계자 28명을 비롯하여 안전생활실천연합,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보험개발원 등 유관단체에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간담회는 이사장 환영사, 협회업무 소개, '97 특수건물 안전점검과 분석, 특수건물관계자와의 대담, 차량용 소화기 기념품 증정과 오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6년간의 협회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고객만족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협회와 국가 방재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특수건물관계자는

- ▲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화관리 관계자의 고용불안, 사기 저하에 대한 문제점과 협회의 건의 임무
- ▲ 위험관리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관한 협회의 계획
- ▲ 화재 시뮬레이션의 개요와 응용분야
- ▲ 방재기술 실무교육에 있어서 전기분야 강화

및 맞춤교육 실시

- ▲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한 방화관리자의 책임 한계
- ▲ 부천 LP가스 폭발사고의 내용과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폭발사고 예측 소프트웨어
- ▲ 화재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의 차등화 방안
- ▲ 제연설비의 문제점과 대책
- ▲ 고층건축물 및 직장내 보육시설에서의 피난 대책
- ▲ 방재시험연구소의 소방용품 성능검사 결과의 공개

등 방화관리업무 수행상의 행정적인 문제점, 방재 기술상의 해결방안, 방재기술실무교육의 개선 희망사항 등 많은 질문이 있었다.

이들 질문사항에 대하여 방재시험연구소장, 기획부장, 위험관리정보센터부장, 위험진단부장, 교육부장, 고객서비스부장, 서울중앙지부장, 김인태 과장 등 관계 임직원이 응답하였다.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호 이해 증진과 방화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짧은 시간을 아끼워하며 간담회를 종료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협회 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대 고객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협회의 공익성업무에 대한 발전 방향과 수익성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위험진단부에서는 간담회 결과를 분석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